

◆ 會員社 動靜 ◆

曉星重工業(株), 中國에 PLC 輸出

曉星重工業(株)(代表 : 柳鍾烈)이 중국에 처음으로 자체개발한 공정논리제어장치(PLC)를 수출한다. 동사는 최근 홍콩의 자동화기기전문업체인 슈발리에 OA社에 공장자동화의 핵심기기인 PLC 4개 기종에 프로그래머를 포함해 3개월 단위로 15만달러 어치씩 지속적으로 공급키로 계약하고 1차분을 선적했다.

이번 계약은 홍콩과 중국에 유통망을 갖고 있는 슈발리에社에 효성브랜드의 PLC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회사 자동화기기의 첫 중국진출이자 해외 대량수출의 기점으로 기록된다. 계약된 4개 수출모델중 주력인 「HXI40」모델은 입출력점 40핀의 소형기종으로 기본 제어기능에 고속카운터와 아날로그 신호수신기능 0.001초단위의 타이머등 특수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효성중공업 FA사업부는 현재 슈발리에 외에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바이어들과 PLC 서보모터 인버터등 자동화기기 수출상담을 진행중인데 올해 이부문 전체매출 4백억원중 10억원 가량의 수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啓洋電機(株), 국산 예초기 대만 · 印尼에 첫 輸出

전동공구 전문업체인 啓洋電機(株)(代表 : 李相翊)가 자체개발한 예초기를 해외에 첫 수출한다. 계약전기는 최근 대만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한 컨테이너분량(10만달러상당)의 예초기를 수출키로 계약을 맺고 이달말 첫 선적한다.

국산 예초기가 해외에 수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계약예초기」는 지난해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으로 논두렁잡초제거 목초지 뽕나무가지치기 묘지 산지벌초작업과 골프장 정원잔디깎기등의 잡풀제거용이다.

소형엔진을 장착했고 장시간 사용시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배낭식과 견착식으로 설계돼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양전기는 이번 계양예초기의 첫수출을 계기로 수출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현지 해외대리점이 있는 중국과 태국시장은 기존판매망을 이용, 공략해 나가기로 했다.

계양전기는 철공용 목공용등 각종 전동공구를 미국 콜롬비아 동남아등 세계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너럴모터스社에는 자동차용 DC모터를 납품해 왔다.

일본 닛토社에 전동공구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으로 수출해온 이 회사는 앞으로 일본지역에 직수출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현지회사들과 상담중으로 최근 개발 시판하고 있는 전기스크라인더 엔진펌프에 이어 곧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LG産電(株), 국내의 전사업장을 연결하는 '통합 정보망' 구축

LG産電(株) (代表 : 李鍾秀)는 '98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본사, 공장, 연구소, 해외법인, 협력업체 등 국내의 전사업장을 연결하는 '통합 정보망'을 구축한다. 이 계획의 1단계로 LG산전은 9월초에 이미 국내 50여 주요 사업장의 PC 3,300대를 LAN/WAN으로 연결하여 정보의 흐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新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서울 본사, 6개 공장, 영업부문, 물류센터, 지방영업소 등 국내 전사업장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생산과 영업, 영업과 서비스 등 각 사업장의 경영정보를 서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전자 Mail과 전자게시판 도입이 가능해지는 등 '98년 '통합 정보망' 구축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내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과 함께 LG산전은 올 연말까지 5개 해외법인과 7개 해외지사를 연결하는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국내와 해외에 있는 사업장 전부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96년에는 국내 1,000여 협력업체 및 특약점을 '통합 정보망'에 연결시켜 수주에서부터 생산, 판매, 서비스까지 일련의 경영활동 효율을 극대화시킴은 물론 협력업체 및 특약점의 정보화를 통한 생산·판매관리의 혁신이 예상된다.

LG산전은 '통합 정보망' 구축과 함께 Downsizing 작업도 추진하는데 '97년 이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통합 정보망'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금은 전문가 수준에서 다뤄졌던 전산 시스템을 사원 누구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전산비용의 상당한 절감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LG산전은 '통합 정보망' 구축과 아울러 정보화 추세와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할 방침이다. 먼저 현재의 전산교육비를 30%씩 증가시키고, 현업에서 직접 부서 실정에 적절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정보담당자(Key Man)를 매년 20명 이상 육성하며, 향후 2년 이내에 PC 보급대수를 1인 1대로 확대하는 등 정보처리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는 인재를 회사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LG산전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 정보망’ 구축 계획이 ’97년 완료된다면 현재 약 90억원이 소요되는 전산비용을 60억원 정도로 축소와 사무인력의 생산성 향상 등 직접적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정량적인 측면보다도 더 큰 이득은 정보공유를 통한 조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신속한 정보 흐름으로 인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다.

한편 LG산전은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경영·기술 정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통합 정보망’ 구축과 함께 인터넷, 국제화상회의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각국과의 정보교류와 경영활동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利川電機工業(株), 몰드 변압기 생산 설비 증설

利川電機工業(株)(代表 : 成基梁)가 몰드 변압기의 생산량을 두배로 늘릴 계획이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몰드변압기가 한국전기연구소의 개발 시험에 합격, 한국전기공업진흥회로부터 공인인증시험면제증을 취득함에 따라 8억원을 투입, 인천 화수동 공장에 설비를 증설 시키로 했다.

오는 ’96년 1월 설비 증설분이 본격 가동되면 몰드변압기는 기존 월 생산량 50대에서 1백대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수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이천전기공업이 공급하고 있는 몰드변압기는 3상 3백KVA급과 3.3KV이상 66kV이하의 기존 변압기와 달리 절연 油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화재의 위험성이 없으며 특수 수지 배합으로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전력손실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수배전제어반, 전동기, 변압기, 발전소용 펌프, 발전기등을 생산해 온 이천전기공업은 올해 매출 목표를 7백 50억원으로 잡아 놓고있다.

회원업체 KS 표시허가획득 안내

업체명	규격번호	규격명	종류, 등급 또는 호칭
동신전선(주)	KS.C 7603	형광등 기구	레피드 스타트식 40W 1등용, 40W 2등용
	KS.C 8102	형광램프용안정기	일반형, 스타아터식 32W